

The Influence of Social Relation and Trust on Sense of Safety

-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ommunity Attachment among Adolescents after the 912 Gyeongju Earthquake -

Ki Sun Sim[#], Hee Jeong Moon, Hye Sun Joo, Hyun Nie Ahn⁺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ommunity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relation and trust and sense of safety among adolescents after the 912 Gyeongju earthquake. For this purpose, the data were gathered through the online survey from 134 high school male students living in Gyeongju area.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trust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lation and sense of safety. Second, community attachment moderated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 on social trust. Third, community attachment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tru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lation and sense of safet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the Gyeongju earthquake, sense of safety, social trust, community attachment,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1. 서론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최근에 발생한 912 경주 지진은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은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었으며, 진원지인 경북 경주시를 비롯하여 대구, 부산, 울산 등을 포함한 경상도 지역 일대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23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10억에 달하는 재산 피해(5,368건)를 가

져왔다(MPSS, 2017). 지진은 여타 자연 재난(예: 허리케인, 폭우, 해일, 산사태 등)과 달리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발생 상황을 시각적으로 관찰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명확한 종결 시점이 없기 때문에 지진을 겪은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심리적 불안감과 상황에 대한 통제감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Jackson, 1981). 경주 지진의 경우에도 비록 지진의 규모는 작아졌지만 최근까지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재난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전히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The 1st author: Ki Sun Sim, Tel. +82-2-3277-2638, Fax. +82-2-3277-4010, e-mail, kisuns15@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Hyun Nie Ahn, Tel. +82-2-3277-2643, Fax. +82-2-3277-4010, e-mail, ahn12@ewha.ac.kr

재난 사건은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 자연재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수면 문제, 섭식 문제, 대인관계 갈등, 비행 행동, 집중력 저하 등을 보일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IOM, 2014; La Greca & Silverman, 2009). 하지만 재난을 경험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재난의 영향으로부터 건강하게 회복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해나간다. 이처럼 재난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때 재난 이후 보일 수 있는 증상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완화하는 요소를 탐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건의 영향으로부터 건강하게 회복하며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과정과 이 과정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을 밝히는 것 역시 중요하다.

재난 이후의 적응에 있어 심리적 안전감(sense of safety)의 증진은 필수적이다. 안전감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와 관련된 것으로 재난 사건을 경험한 이후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은 적응과 회복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Herman, 2015). 선행 연구들은 재난 이후 심리적 안전감을 회복시키는데 효과적인 변인으로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Weem & Overstreet(2008)의 리뷰 연구에 의하면 가족 및 또래를 비롯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서 받는 정서적 지지는 청소년들에게 재난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주고 회복을 촉진한다. 이렇듯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많을수록 안전감을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이는 재난 이후 적응과 장기적인 회복에 있어 효과적이다.

한편, 다수의 선행 연구를 통해 사회적 관계가 재난 이후 청소년의 적응에 효과적이라는 인과관계는 밝혀져 왔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변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탐색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재난 이후 적응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단순히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넘어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변인들의 역할을 보다 정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때 재난에 대한 개인 차원의 변인을 넘어 보다 거시적인 변인

의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ronfenbrenner & Ceci(1994)의 생태 체계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다양한 차원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데 재난의 회복 과정 역시 개인 내적 생리 체계뿐만 아니라 미시 체계, 외부 체계, 거시 체계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Hoffman & Kruczek, 2011).

이러한 변인 중 본 연구에서는 거시 체계에 포함된 사회적 신뢰에 초점을 두어 재난 이후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가 안전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의 매개 역할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가족, 이웃, 정부 기관)에 대하여 개인의 신뢰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 인지 이론(Bandura, 1986)에 따르면 인간은 외부 자극을 반응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가진 인지적 사고의 영향을 받게 되며 이에 동일한 외부 자극이 주어지더라도 개개인의 인지 작용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주변 환경 및 사회가 믿을 만하고 신뢰롭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인식이 재난 이후 안전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재난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이에 재난 이후 회복을 설명할 때 그 지역 사회와 관련된 맥락적 변인을 포함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맥락적 변인으로 포함시켰는데 지역사회 애착은 재난 이후 회복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인 중 하나이다. 지역 사회 애착은 지역 주민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재난 이후 회복 과정에서 핵심적인 변인으로 밝혀져 왔다(Sampson, 1988; Song & Cho, 2014). 특히 청소년의 신체 사회적 발달에 있어 많은 부분들이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애착은 중요한 요소이며 경주 지진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지역과 관련된 인식이 지진 이후의 반응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듯 선행연구에서 지역사회 애착과 사회적 신뢰가 심리적 안전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

임을 밝히고 있지만, 재난 이후 이러한 변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가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사회적 신뢰의 인지적 과정에 의해 매개되고, 이와 동시에 지역사회 애착과 같은 환경적 맥락에 의해 조절되는 과정에 대해 탐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동시에 포함하는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가 언제 발생하는지 세밀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적 신뢰를 거쳐 안전감으로 이어지는 인과적 경로의 속성이 맥락적 요인인 지역사회 애착 수준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재난 사건 이후 안전감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환경적인 변인인 지역사회 애착과 사회적 신뢰의 영향력을 검증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재난 이후 회복을 위한 개입에 있어 보다 거시적인 변인에 초점을 둔 개입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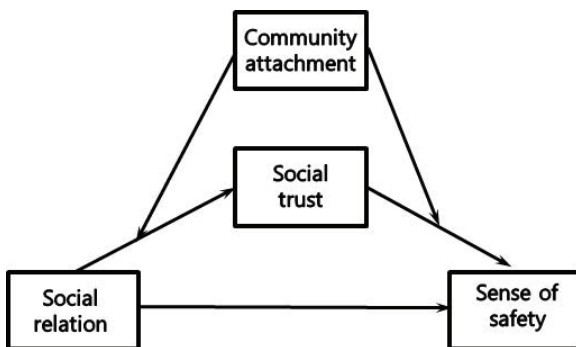


Figure 1. The research model

- 첫째,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관계와 안전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 둘째,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신뢰 간의 관계를 지역사회 애착이 조절하는가?
- 셋째, 사회적 신뢰와 안전감 간의 관계를 지역사회 애착이 조절하는가?

넷째, 지역사회 애착은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신뢰를 통해 안전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재난 이후 청소년의 심리적 안전감

안전이란 기본적으로 위협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WHO, 2002), 안전감이란 위협에 대한 불안과 이로 인한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 편안한 상태를 의미한다. 재난 발생 이후 가장 중요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안전감과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Herman, 2015). 재난과 집단 트라우마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에서는 재난 직후와 중기에 효과적인 개입의 5가지 요소로 안전감의 회복(restoration of safety), 진정(calming), 자기 및 집단 효능감(self and collective efficacy), 유대감(connectedness)과 희망(hope)을 밝힌 바 있다(Hobfoll, *et. al.*, 2007). 일반적으로 재난 이후 안전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재난에 대해 적절한 대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등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Gaffney, 2006).

재난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재난 이후 보일 수 있는 증상(예: PTSD, 우울, 불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재난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재난의 영향은 청소년을 둘러싼 서로 다른 맥락에서 보호요인과 취약요인 사이의 균형에 달려있다(Weems & Overstreet, 2008). 이로 인해 재난 이후 건강한 적응과 회복 과정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감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재난 이후 그들을 둘러싼 환경(가정, 학교, 지역 사회 등)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지각하며 재난 이전과 유사한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자가 재난 이후에 청소년들에게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

하게 인지하며 재난 상황에 대해 과장 없는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충분히 표현하도록 허용할 때 청소년들은 안전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Edmondson, *et. al.*, 2004; McDermott, *et. al.*, 2014). 또한 양육자뿐만 아니라 동일한 경험을 한 또래 집단이나 지역 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경험을 함께 이야기하며 나누는 것 역시 청소년의 안전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AACAP, 2008; Kranke, *et. al.*, 2012).

2.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안전감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안전감 증진에 있어 부모, 교사, 또래의 영향력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고(Madrid & Grant, 2008; Son & Lee, 2015), 이러한 외부 인물은 모두 청소년이 맺는 '사회적 관계'의 일환이다. Hirschi(2002)는 청소년들이 심리적 안전감을 가지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이유를 사회적 관계로 설명하는데, 부모, 또래, 교사와의 강한 유대는 청소년에게 원만한 사회적 관계의 원동력이 되며 이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전감을 증진시키는 요소이다. 청소년기는 상호작용하는 관계 대상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심리적 발달에 있어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에 청소년의 심리적 안전감 증진에 있어서도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다양한 타인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사회적 관계는 재난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도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회복을 촉진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재난 후유증을 완화시키고 재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 중국 스촨성 대지진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Ma, *et. al.*, 2011)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많이 가지는 청소년들의 경우 증상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경험한 청소년들

의 심리사회적 프로파일을 연구한 결과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력 요소로 타인과 편인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형성하는 능력이 밝혀진 바 있다(Nelson, 2008).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많은 청소년들은 지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자존감과 희망을 지닐 수 있었으며 이는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hou, *et. al.*, 2018).

3. 사회적 신뢰의 매개효과

한편,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관계가 재난 이후 안전감 회복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은 여러 차례 검증된 바 있지만, 그 영향력의 기제로 작용하는 변인들에 대해 탐색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재난 이후 안전감을 회복하는 과정은 단일 변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맥락 변인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태 체계 이론에 기반하여 재난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관련 변인들에 대하여 메타분석을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Lee, 2016), 재난 이후 적응은 개인을 둘러싼 여러 차원의 환경과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데 이러한 차원은 개인 체계(예: 성격, 기질, 심리적 자원 등), 미시 체계(예: 친구, 가족, 학교 등), 외부 체계(예: 재난 예방 및 관리 역량, 정신건강 관리체계 등), 거시 체계(예: 신뢰 체계, 문화 규범 등)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변인 중 본 연구에서는 거시 체계에 포함된 변인인 사회 신뢰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재난 이후 안전감을 회복해 가는 과정에 사회 신뢰가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역할을 할 것을 가정하였다. 즉, 재난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안전감을 회복하는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신뢰(trust)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타인에 의해 해를 당하지 않고 타인이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로 정의할 수 있으며(Jones & George, 1998; Suh, 2013), 타인에 대한 신뢰를 사회의 범위가

지 확장 시킨 개념이 사회적 신뢰(social trust)이다. 사회적 신뢰는 위험 상황 발생 시에 이에 대해 사람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인데,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타인으로부터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전한 대처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Mayer, *et al.*, 1995; Siegrist & Cvetkovich, 2000).

특히 사회적 신뢰의 가치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일반적으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대처하게 되지만 신뢰로운 외부 전문가를 찾는 것과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완전히 신뢰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산불, 화산 및 지진 등의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신뢰로운 전문가와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에 주변의 신뢰로운 관계로부터 얻는 대처 정보를 통해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신뢰가 심리적 안전감을 높여주는 요인임을 시사한다(Paton, 2007).

사회적 신뢰는 재난 이후 청소년들의 적응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Vigil과 Brophy(2012)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재난 이후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비롯한 적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혔으며 재난 이후 회복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에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감과 안전감 그리고 정신장애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청소년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 대하여 신뢰감을 갖는 것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특히 정서적 장애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기에 지역사회를 신뢰할 만하고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함을 주장하였다(Meltzer, *et al.*, 2007).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신뢰가 건강한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재

난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신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보다 명확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4. 지역사회 애착의 조절효과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애착을 조절변인으로 포함하여 사회적 관계가 사회 신뢰를 통해 안전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맥락적인 변인의 역할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재난은 발생과 회복 과정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의 재난 이후 회복 과정을 탐색할 때 지역사회 관련 변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재난의 회복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인으로는 지역사회 애착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 신뢰가 안전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사회 애착 수준에 따라 조절된다고 가정하고 조절된 매개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애착이란 지역에 대한 깊은 정서적 유대감이나 연결감으로 특정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긍정적인 상호 작용이 반복되면서 형성된다(Milligan, 1998). 청소년은 발달 과정에서 지역사회 이웃, 주민, 공동체와 맺는 관계를 통해 자율성과 자신감을 기르고 나아가 지역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지역사회 애착을 형성하는 핵심적 시기로 볼 수 있다(Korpela, 1992). 지역사회 애착은 청소년기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데, 지역사회 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이 감소하고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한다는 여러 선행연구가 존재한다(Ingoldsby & Shaw, 2002; Leventhal & Brooks-Gunn, 2000). 지역사회 애착은 안전하다는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Dallago,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13개 국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역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이러한 인식이 안전감을 느끼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비교문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애착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13개의 국가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바 있다.

재난 상황에서도 지역 사회 애착 수준에 따라 청소년이 보이는 반응에 차이가 있는데 지역 사회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지역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Vaske & Kobrin, 2001). Cutter, *et. al.*(2008)은 재난의 회복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지역 사회 재난 탄력성 모델(The Disaster Resilience of Place; DROP model)’을 제안하였다. 본 모델에 의하면 재난 이후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가 지역 사회 구성원이 지역 사회에 가지는 애착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이후의 대처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이나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재난 발생 이후의 복구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심리적 안전감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ton, *et. al.*, 2001).

한편, 지역사회는 지역 주민의 삶의 중요한 맥락으로 사람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Jang & Lim, 2015).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 강하고 의미 있는 연결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애착과 사회 신뢰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wicka, 2005). 이와 관련하여 Porter와 Lilly(1996)에 따르면 사회적 신뢰는 집단 내 갈등과 부적 상관성이 있으며, 구성원들 간의 불신은 집단의 응집력과 지역 사회 애착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신뢰와 지역사회 애착 변인을 함께 포함시켜 이 변인들이 재난 후 회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한 선행 연구는 미비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절차 및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경주 지역 교육지원청에

본 연구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여 해당 지역 중, 고등학교의 담당 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였고, 이 중 한 남자 고등학교가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해당 학교의 재학생 중 본 연구의 참여를 희망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본 연구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두 달 정도의(2017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 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가 제공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도구들을 포함한 설문조사는 완료하는데 15-2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해당 학교 2학년 378명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연구 참여에 동의한 283명(74.9%)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온라인 설문 주소를 발송하였다. 이들 중 138명(48.8%)이 설문을 완료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34부(97.1%)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응답률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설문 내용이 재난 경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참여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전 과정은 연구 수행에 앞서 본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 생명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IRB no. 90-6).

2. 측정 도구

1) 인구통계학적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나이, 학교,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1=하, 2=중하, 3=중, 4=중상, 5=상)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2) 재난 노출 수준

재난 노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Giannopoulou, *et. al.*(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진 노출 수준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7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접 노출과 간접 노출 유무를 확인하는 문항들과 재난에 따른 신체적 부상, 경제적 손실, 사건 당시 생명의 위협 지각 유무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안전감

현재 심리적으로 안전함을 느끼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Kim & Baek(2008)의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에서 안전감 소척도가 사용되었다. 안전감 척도는 학교에서의 안전감(예, '나는 내가 다니는 학교 나 그 주변에서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과 거주 지역 안전감(예, '나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을 측정하는 총 10개의 문항에 대해서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다소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0로 우수한 수준을 나타냈다.

4) 지역사회 애착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고자 CCRAM(The Conjoint Community Resiliency Assessment Measure; CCRAM) (Leykin, *et. al.*, 2013)의 하위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해당 소척도는 Min, *et. al.*(2016)의 연구에서 한국어로 번안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총 3개의 문항(예, '나는 우리 지역에 산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우리 지역에 소속감을 느낀다', '내가 사는 지역을 떠나게 된다면 아쉬울 것 같다')에 대해서 5점 Likert 척도(1=동의하지 않음, 5=강하게 동의함)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7로 보통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5) 사회적 신뢰

개인의 환경 맥락에 대한 신뢰 수준 측정에는 세계가치관 조사 연구(World Value Survey)의 사회적 신뢰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문항 3개를 사용하였다.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신뢰를 비롯하여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 측정하고 있으며 4점 Likert 척도(1=전혀 신뢰하지 않음, 2=신뢰하지 않음, 3=신뢰함, 4=매우 신뢰함)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56로 다소 낮은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6) 사회적 관계

주요 사회적 관계 경험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Kim & Baek(2008)의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의 사회적 관계 소척도가 사용되었다. 사회적 관계 척도는 가정, 학교, 또래 환경에서 지각된 대인관계 경험에서의 지지적 경험이나, 경험의 개방, 주관적 만족감 등을 측정하는 총 12개의 문항에 대해서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다소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9로 우수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과 SP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규성 파악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Preacher, *et. al.*(2007)의 제안에 따라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적 신뢰의 매개효과는 Baron & Kenny(1986)의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지역사회 애착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자료를 평균 중심화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애착이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신뢰를 통해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Hayes(2012)의 template 중 본 연구 모형에 해당하는 model 7을 바탕으로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N=134)

	1	2	3	4	5
1. Sense of safety					
2. Social relation	.25***				
3. Social trust	.28***	.45***			
4. Community attachment	.18*	.33***	.46***		
5. Social economic status	.12	.44***	.17	.13	
M	4.10	3.75	2.73	3.31	3.10
SD	.76	.67	.54	.99	.88
Skewness	-1.34	-.44	.07	-.24	-.06
Kurtosis	2.58	1.24	-.10	-.27	.10

* p <.05, ** p<.01, *** p<.001.

IV.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우선, 본 연구 참여자의 재난 노출 수준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지진을 직접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134명, 100%) 응답자 모두가 지진에 직접 노출된 양상을 보였으며, 이 중 75명(56%)은 지진 발생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지진으로 인한 신체적 부상을 입은 사람은 3명(2.2%),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사람은 18명(13.4%), 지진 발생 당시 친구나 가족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가 명, 지진으로 인해 가족이 영구적인 신체 부상 발생 여부는 2명(1.5%)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의 기술 통계와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자료의 정상성 검증을 위해 측정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변인 간 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요 변인들은 모두 유의한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안전감은 사회적 지지($r=.25, p<.001$), 사회적 신뢰($r=.28, p<.001$), 그리고 지역사회 애착

($r=.18, p<.05$)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신뢰($r=.45, p<.001$), 지역사회 애착($r=.33, p<.001$)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사회적 신뢰는 지역사회 애착과($r=.46, p<.001$)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주요 변인 간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상관 분석을 한 결과, 독립변인인 사회적 관계($r=.45, p<.001$)를 제외하고 종속변인, 매개변인, 조절변인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추후 분석에서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는 제외하였다.

각 변인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2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7미만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정규성이 가정됨을 확인하였다(West, *et. al.*, 1995).

2. 매개효과 검증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관계와 안전감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분석 절차에 따라 세 단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단계에서 사회적

Table 2. Regression results for testing mediation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R^2	F
1	Social relation	→ Sense of safety	.282	.095	.249***	.055	8.731***
2	Social relation	→ Social trust	.355	.062	.446***	.193	32.757***
3	Social relation	→ Sense of safety	.173	.405	.153	.085	7.209**
	Social trust	→	.306	.132	.215*		

* p <.05, ** p<.01, *** p<.001.

Table 3. Bootstrapping results

Variable	β	Boot S.E	95% CI	
			Lower	Upper
Social trust	.306	.124	.065	.554

* $p < .05$, ** $p < .01$, *** $p < .001$.

관계가 안전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249, p < .001$). 2단계에서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446, p < .001$). 3단계에서 사회적 관계가 안전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적 신뢰가 안전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15, p < .05$). 특히, 사회적 신뢰를 투입하였을 때, 사회적 관계가 안전감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53, p > .05$). 따라서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관계와 안전감의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Table 3〉).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으며, 매개효과 계수는 .306였다.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065와 .554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사회적 신뢰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reacher & Hayes, 2004).

3. 조절효과 검증

다음으로 지역사회 애착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Aiken & West(1991)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우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 중심화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였다(Cohen, *et. al.*, 2003). 첫 번째로,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신뢰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애착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단계에서 사회적 관계와 지역사회 애착을 투입한 뒤, 2단계에서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R^2 의 변화량이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Delta R^2 = .051, p < .05$),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beta = .227, p < .001$). 즉,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사회 애착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로, 사회적 신뢰와 안전감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애착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단계에서 사회적 신뢰와 지역사회 애착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 두 변인

Table 4. Regression results for testing moderation

		Dependent variable: Social trust					
		B	S.E	β	t	R^2	F
Step 1	Social trust	.263	.061	.330	4.311***	.312	29.655***
	Community attachment	.193	.042	.355	4.634***		
Step 2	Social relation	.269	.059	.338	4.561***	.362	24.623***
	Community attachment	.204	.040	.377	5.069***		
	Social relation x Community attachment	.155	.048	.227	3.215***		
		Dependent variable: Sense of safety					
		B	S.E	β	t	R^2	F
Step 1	Social trust	.361	.134	.254	2.692**	.084	5.973**
	Community attachment	.049	.073	.064	.676		
Step 2	Social trust	.386	.149	.272	2.596*	.085	.158
	Community attachment	.039	.077	.051	.514		
	Social relation x Community attachment	-.046	.116	-.037	-.398		

* $p < .05$, ** $p < .01$, *** $p < .001$.

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 애착의 주효과 및 사회적 관계와 지역사회 애착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애착이 안전감을 독립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으며, 사회적 신뢰와 안전감의 관계 역시 유의하게 조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단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해야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이후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에서 본 경로는 제외하였다.

유의미하게 나타난 지역사회 애착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수가 높을 때와 낮을 때 각각의 경우(M±1SD)에서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Aiken & West, 1991). <Figur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신뢰는 지역사회 애착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역사회 애착을 가진 집단의 경우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즉, 높은 수준의 지역사회 애착은 낮은 수준의 지역사회 애착을 가진 청소년에 비해 기존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신뢰로 강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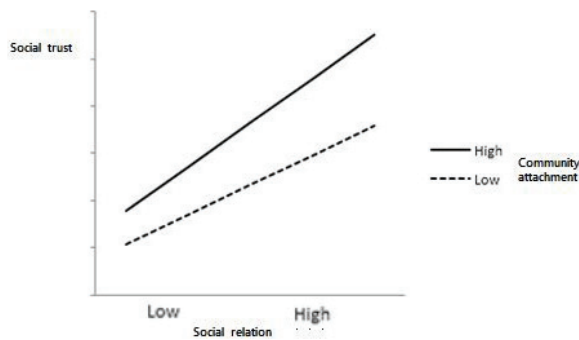


Figure 2. Interaction effect between social relation and community attachment

4.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Preacher, et. al.(2007)의 제안에 따라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에 앞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을 통하여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관계와 안전감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며,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신뢰의 관계를 지역사회

애착이 유의미하게 조절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효과를 결합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SPSS Macro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 모형에 해당하는 model 7을 적용하였다(<Figur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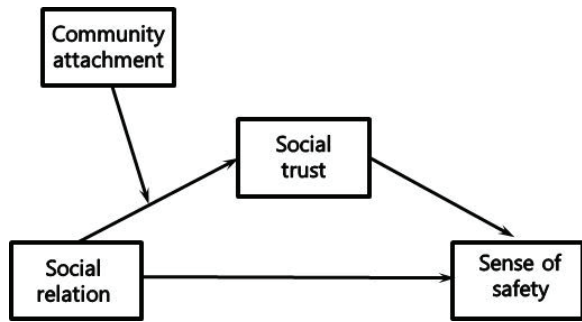


Figure 3. Adjusted research model

그 결과, 사회적 관계와 지역사회 애착의 상호작용 효과는 사회적 신뢰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beta = .227, p < .001$), 사회적 신뢰는 안전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beta = .215, p < .001$). 즉,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신뢰를 통해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지역사회 애착에 의해 조절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절된 매개효과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수인 지역사회 애착의 평균과 $\pm 1SD$ 에 따라 자료를 세 그룹(저, 중, 고)으로 나누고, 각 그룹마다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신뢰를 통해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효과가 유의한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살펴보았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 애착이 높거나 평균인 집단에서는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이 각각 .030과 .269, 그리고 .020과 .180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역사회 애착이 낮은 집단에서는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이 -.001과 .106으로 0을 포함하여 사회적 신뢰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 애착이 높거나 평균인 집단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신뢰를 거쳐 안전감에 이르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지역사

Table 5. Moderated mediated results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ocial trust							R ²	F
	B	S.E	β	t	95% CI				
					Lower	Upper			
Social relation	.270	.059	.338	4.563***	.153	.386			
Community attachment	.204	.040	.377	5.063***	.124	.284	.362	24.622***	
Social relation x community attachment	.155	.048	.227	3.215***	.060	.251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ense of safety							R ²	F
	B	S.E	β	t	95% CI				
					Lower	Upper			
Social relation	.173	.405	.153	1.652	-.034	.381	.099	7.209***	
Social trust	.306	.132	.215	2.323*	.045	.566			

Moderator	Conditional indirect effect				
	level	β	Boot S.E	95% CI	
				Lower	Upper
Community attachment	-1SD(-.9888)	.036	.025	-.001	.106
	Mean	.082	.039	.020	.180
	+1SD(.9888)	.129	.060	.030	.269

* p <.05 , ** p<.01, *** p<.001.

회 애착이 낮은 집단에서는 이러한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애착이 커질수록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신뢰를 통해 안전감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가 높은 청소년들은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고 높은 사회적 신뢰는 안전감 회복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역사회 애착이 높거나 평균인 경우에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912 지진을 경험한 경주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회복하는 과정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 또래, 그리고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신뢰를 매개하여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신뢰를 거쳐 안전감에 이르는 경로를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Preacher, et. al.(2007)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매개효과, 조절효과 및 이를 통합한 조

절된 매개효과를 순차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관계와 안전감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많을수록 재난 이후 사회를 신뢰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로 인해 안전감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재난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적응 과정에 관한 다수의 선행 연구(Kaniasty, 2012; Bokszczanin, 2012)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사회적 관계 변인이 안전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통해 안전감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관계가 안전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사회적 신뢰가 재난 이후의 회복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일치한다(Paton, 2007).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신뢰의 매개 효과는 사회인지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이자 재난 이후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시적인 측면의 변인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신뢰에 주는 영향력과 사회적 신뢰가 안전감에 주는 영향력 모두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지역사회 애착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애착의 수준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신뢰와 안전감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애착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애착을 느낄수록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신뢰의 관련성을 유의미하게 강화시키지만 사회적 신뢰와 안전감의 관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주변 사람들과 지지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 발달에 매우 중요한 환경으로 청소년기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Dallago, *et. al.*, 2009; Leventhal & Brooks-Gunn, 2000). 또한, 지역사회 애착은 청소년의 발달 전환기에 위기를 맞이했을 때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진 바 있다(Hay, 1998). 본 연구 결과는 지역사회 애착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데 즉, 기존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청소년들도 지역사회 애착을 통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사회적 관계와 안전감 간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애착을 통한 사회적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관계가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것으로, 지역사회 애착이 단순히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신뢰 사이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안전감에 미치는 경로 전체를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사회 애착이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신뢰 및 안전감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 완충시킬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중재 변인임을 나타낸다. 즉,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빈약하더라도 지역사회에 높은 애착을 가질 경우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켜 안전감을 형성할 수 있지만, 기존 사회적 관계가 강하더라도 지역사회 애착이 낮은 경우 사회적 신뢰를 거쳐 안전감을 형성하는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에 의해서 지지되는데 선행연구에서 지역사회 애착은 안전하다는 인식과 느

낌에 밀접하고도 일관되고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Dallago, *et. al.*, 2009; Austin, *et. al.*, 2002).

본 연구 결과는 재난 이후 청소년들이 안전감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설명을 제공하는데, 청소년들은 또래, 부모, 교사와 맺는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사회가 믿을만하고 신뢰롭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인식을 통해 재난 이후 안전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신뢰를 거쳐 안전감을 형성하는 경로는 지역사회 애착이라는 환경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지역사회 애착 수준에 따라 안전감 형성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즉, 자신의 지역사회에 애착 수준이 높거나 보통 정도인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신뢰로 이르는 경로를 강화시켜 재난 이후 안전감의 형성에 기여하지만, 지역사회 애착 수준이 낮은 경우 이러한 경로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을 경험한 청소년의 안전감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과 연결감에 초점을 맞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기존에 재난 사건이 발생하면 주로 고위험군 청소년을 선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심리 치료적 개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입으로 청소년의 회복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선행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이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수여자들 넘어서 청소년 역시 가족과 또래를 돕고 지역사회 회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Peek, 2008). 구체적으로, 베이징 지진을 경험한 청소년(7-15세)들은 지진으로 인해 붕괴된 학교와 지역사회를 재건하는데 참여하면서 지역사회 응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바 있다(Zeng & Silverstein, 2011). Scannell, *et. al.*(2016)은 아동 및 청소년이 포함된 지역 재건 프로그램(Child and youth-inclusive place rebuilding programs)을 제안하며 재난 후 재건과 회복 계획 단계부터 청소년들의 인식과 욕구가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통제감 및 지역

사회 애착의 재형성을 돕고 그들의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던 다양한 사회문화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이후 청소년의 안전감 회복 과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사회적 관계, 사회적 신뢰, 지역사회 애착의 역할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꾸준히 발생한 자연재해 중 하나지만 그 규모와 피해가 크지 않아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지진을 대상으로 지진 이후 회복 과정에서 효과적인 변인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선행 연구들은 개인 트라우마와 달리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경험한 지진과 같은 재난의 복합적인 영향력과 이후 적응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난으로 인한 개인적 반응을 넘어서 생태학적 관점에서 다층적인 맥락 변인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Lee, 2016; Hoffman & Kruczek, 2011). 이러한 주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난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키고 적응에 도움을 주는 보호 요인으로 기존 연구에서 개인 내적 변인(예: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전략 등)에 초점을 맞춰 연구되어 오던 것을 확장하여 보다 사회 맥락적인 측면의 변인이 재난 이후 회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데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취약한 연령층 중 하나인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회복에 효과적인 변인에 대하여 탐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청소년기는 가정에서 독립하고 사회인이 되기 전의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시기로 이러한 시기에 경험한 주요 사회적 사건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 및 타인과 세상에 대한 인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Dallago, *et. al.*, 2009). 따라서 재난 사건 이후 청소년들의 안전감을 회복시키고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게 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한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지진 사건 이후 청소년들의 안전감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치료적 개입 및 청소년 보호 정책 수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주에 위치한 남자 고등학교 한 곳에서만 실시되었으며, 최종 자료 분석 인원도 134명으로 재난을 경험한 청소년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본 연구 참여자 수를 수용할 만 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 보다 많은 참여자와 다양한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반복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 비해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인식을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Dallago, *et. al.*, 2009),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 연대감이 재난 이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바 있다(Moscardino, *et. al.*, 2010). 또한,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 따라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급에 따른 본 연구 변인들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중기 청소년기(14-16세)에서 초기 청소년기(11세-13세)와 후기 청소년기(17세-19세)에 비해 지역사회 애착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Hidalgo & Hernandez, 2001). 이처럼 재난의 회복 과정에서 본 연구 변인들의 영향력에 있어 학급 및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다수의 중학생 및 여자 청소년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켜 조절된 매개 효과를 추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지역사회 애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지 못하여 이중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가 본 연구 변인들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 결과 독립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는 유의

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아 분석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Jang & Lim(2015)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 학력, 거주 형태, 거주 기간, 장애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바 있다. 또한, Flaherty & Brown(2010)은 지역사회 애착과 관련한 개인 수준 변인(예: 거주 기간, 연령, 자녀 수, 결혼 유무, 직업, 사회 경제적 지위, 인종, 성별)과 지역 수준 변인(예: 지인의 밀도, 지역의 경제적 수준, 거주 안정도, 거주민 수 등)을 구분하여 지역사회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있는데 그 결과 개인 수준의 변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수준의 변인 역시 지역사회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애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변수를 연구에 포함하여 지역사회 애착 관련 변인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측면의 변인으로 사회적 신뢰와 지역사회 애착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 외에도 외부 체계 변인(예: 정신 건강 서비스 접근성) 거시 체계 변인(예: 소득 불평등 수준)이 안전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안전감 회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변인의 효과를 탐색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신뢰, 안전감과 같은 변인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재난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가 부재한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Kim & Baek, 2008) 중 안전감 척도를 사용하여 912 경주 지진을 떠올리며 응답하도록 지시문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재난에 대한 안전감으로 해석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재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하여 관련 변인들을 측정하는 신뢰로운 도구들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38236).

References

- AACAP(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008. *Helping Children after a Disaster*. Fact for Families. 36.
- Aiken, L. S. and S. G. West.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ustin, D. M., L. A. Furr, and M. Spine. 2002. The Effects of Neighborhood Conditions on Perceptions of Safet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0(5): 417-427.
-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 Baron, R. M. and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okszczanin, A. 2012. Social Support Provided by Adolescents Following a Disaster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Sense of Community at School, and Proactive Coping. *Anxiety, Stress, & Coping*. 25(5): 575-592.
- Bronfenbrenner, U. and S. J. Ceci. 1994. Nature-nurture Reconceptualized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A Bioecological Model. *Psychological Review*. 101(4): 568-586.
- Cohen, J., P. Cohen, S. G. West, and L. S. Aiken.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3r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Cutter, S. L., L. Barnes, M. Berry, C. Burton, E. Evans, E. Tate, and J. Webb. 2008. A Place-based Model for Understanding Community Resilience to Natural Disaster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8(4): 598-606.

- Dallago, L., M. Santinello, D. D. Perkins, W. Boyce, M. Molcho, and A. Morgan. 2009. Adolescent Place Attachment, Social Capital, and Perceived Safety: A Comparison of 13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4(1): 148-160.
- Edmondson, A. C., R. M. Kramer, and K. S. Cook. 2004. Psychological Safety, Trust, and Learning in Organizations: A Group-level Lens. *Trust and Distrust in Organizations: Dilemmas and Approaches*. 12: 239-272.
- Flaherty, J. and R. Brown. 2010. A Multilevel Systemic Model of Community Attachment: Assess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Community and Individual Level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6: 503-542.
- Gaffney, D. A. 2006. The Aftermath of Disaster: Children in Crisi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8): 1001-1016.
- Giannopoulou, I., M. Strouthos, P. Smith, A. Dikaiakou, V. Galanopoulou, and W. Yule. 2006. Post-traumatic Stress Reaction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Exposed to the Athens 1999 Earthquake. *European Psychiatry*. 21(3): 160-166.
- Hay, R. 1998. Sense of Place in Development Contex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8(1): 5-29.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White Paper. http://www.afhayes.com/public/process_s2012.pdf.
- Herman, J. L. 2015.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Hachette UK.
- Hidalgo, M. C. and B. Hernandez. 2001. Place Attach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Ques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3): 273-281.
- Hirschi, T. 2002. *Causes of Delinquency*. Transaction Publishers.
- Hobfoll, S. E., P. Watson, C. C. Bell, R. A. Bryant, M. J. Brymer, M. J. Friedman, M. Friedman, B. P. Gersons, J. T. de Jong, C. M. Layne, and S. Maguen. 2007. Five Essential Elements of Immediate and Mid-term Mass Trauma Intervention: Empirical Evidence. *Psychiatry*. 70(4): 283-315.
- Hoffman, M. A. and T. Kruczek. 2011. A Bioecological Model of Mass Trauma: Individual, Community, and Societal Effects. *Counseling Psychologist*. 39: 1087-1127.
- Ingoldsby, E. M. and D. S. Shaw. 2002. Neighborhood Contextual Factors and Early-starting Antisocial Pathway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5(1): 21-55.
- Institute of Medicine(IOM). 2014.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Considerations for Children and Families: Workshop Summary*. National Academies Press.
- Jackson, E. L. 1981. Response to Earthquake Hazard: The West Coast of North America. *Environment and Behavior*. 13(4): 387-416.
- Jang, Jeong Soon and Won Sun Lim. 2015.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Community Attachment. *Journal of Korean Policy*. 15(2): 101-125.
- Jones, G. R. and J. M. George. 1998. The Experience and Evolution of Trust: Implications for Cooperation and Team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531-546.
- Kaniasty, K. 2012. Predicting Social Psychological Well-being Following Trauma: The Role of Postdisaster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Trauma: Research, Practice, and P. policy*. 4(1): 22-33.
- Kim, Shin Young and Hye Jeong Baek. 2008. The Construction of Korean Youth Happiness Index.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6): 140-173.
- Korpela, K. M. 1992. Adolescents' Favourite Places and Environmental Self-regul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 12(3): 249-258.
- Kranke, D., J. Guada, B. Kranke, and J. Floersch. 2012. What Do African American Youth with a Mental Illness Think about Help-seeking and Psychiatric Medication?: Origins of Stigmatizing Attitudes. *Social Work in Mental Health*. 10(1): 53-71.
- La Greca, A. M. and W. K. Silverman. 2009. Treatment and Prevention of Posttraumatic Stress Reaction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Exposed to Disasters and Terrorism: What Is the Evidence?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3(1): 4-10.
- Lee, Na Bin. 2016. A Meta Analysis Study of Disaster Victims' Post-traumatic Stress Response Related Variables based on Ecological Theory. Ph. D. Dissertation. Ewha Woman University.
- Leventhal, T. and J. Brooks-Gunn. 2000. The Neighborhoods They Live in: The Effects of Neighborhood Residence on Child

- and Adolescent Outcomes. *Psychological Bulletin*. 126(2): 309-337.
- Lewicka, M. 2005. Ways to Make People Active: The Role of Place Attachment, Cultural Capital, and Neighborhood Ti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5(4): 381-395.
- Leykin, D., M. Lahad, O. Cohen, A. Goldberg, and L. Aharonson-Daniel. 2013. Conjoint Community Resiliency Assessment Measure-28/10 Items (CCRAM28 and CCRAM10): A Self-report Tool for Assessing Community Resili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2(3-4): 313-323.
- Ma, X., X. Liu, X. Hu, C. Qiu, Y. Wang, Y. Huang, Q. Wang, W. Zhang, and T. Li. 2011. Risk Indicators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dolescents Exposed to the 5.12 Wenchuan Earthquake in China. *Psychiatry Research*. 189: 385-391.
- Madrid, P. A. and R. Grant. 2008. Meeting Mental Health Needs Following a Natural Disaster: Lessons from Hurricane Katrina.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9(1): 86.
- Mayer, R. C., J. H. Davis, and F. D. Schoorman.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 McDermott, B., V. Cobham, H. Berry, and B. Kim. 2014. Correlates of Persisting Posttraumatic Sympto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18 Months after a Cyclone Disaster.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8(1): 80-86.
- Meltzer, H., P. Vostanis, R. Goodman, and T. Ford. 2007. Children's Perceptions of Neighbourhood Trustworthiness and Safety and Their Mental Healt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8(12): 1208-1213.
- Milligan, M. J. 1998. Interactional Past and Potential: The Social Construction of Place Attachment. *Symbolic Interaction*. 21(1): 1-33.
- Min, Moon Kyung, Hye Sun Joo, and Hyun Nie Ahn. 2016. Differences in Social Sharing and Community Resilience after Disaster among Social Empathy Latent Classe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42(6): 140-173.
- Moscardino, U., S. Scrimin, F. Capello, and G. Altoe. 2010. Social Support, Sense of Community, Collectivistic Value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 Survivors of the 2004 Beslan Terrorist Attack. *Social Science & Medicine*. 70: 27-34.
-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MPSS). 2017. *The 912 Earthquake White Paper*. <http://www.mpss.go.kr/home/index.html>.
- Nelson, L. P. 2008. A Resiliency Profile of Hurricane Katrina Adolescents.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3(1): 57-69.
- Paton, D. 2007. Preparing for Natural Hazards: The Role of Community Trust.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16(3): 370-379.
- Paton, D., M. Millar, and D. Johnston. 2001. Community Resilience to Volcanic Hazard Consequences. *Natural Hazards*. 24(2): 157-169.
- Peek, L. 2008. Children and Disasters: Understanding Vulnerability, Developing Capacities, and Promoting Resilience.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s*. 18(1): 1-29.
- Porter, T. W. and B. S. Lilly. 1996. The Effects of Conflict, Trust, and Task Commitment on Project Team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7(4): 361-376.
- Preacher, K. J. and A. F. Hayes.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and Computers*. 36(4): 717-731.
- Preacher, K. J., D. D. Rucker, and A. F. Hayes.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Sampson, R. J. 1988. Local Friendship Ties and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 Multilevel Systemic Mode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5): 766-779.
- Scannell, L., R. S. Cox, S. Fletcher, and C. Heykoop. 2016. "That Was the Last Time I Saw My House": The Importance of Place Attachment among Children and Youth in Disaster Contex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8: 158-173.
- Siegrist, M. and G. Cvetkovich. 2000. Perception of Hazards: The Role of Social Trust and Knowledge. *Risk Analysis*. 20(5): 713-720.

- Son, Seon Ok and Bong Joo Lee. 2015. A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f Adolescent Social Relations: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and Depression, and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0): 1-26.
- Song, Jung Ae and Geum Rahng Cho. 2014. The Effect for the Health of Family of Local Residents in the Local Society Attachment. *Journal of Social Science*. 21(2): 188-210.
- Suh, Woon Seok. 2013.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Trust in Gyeonggi Province. *Journal of Public Society*. 3(1): 47-73.
- Vaske, J. J. and K. C. Kobrin. 2001. Place Attachment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32(4): 16-21.
- Vigil, J. M. and S. Brophy. 2012. Trustworthiness Processing and Psychological Responses to Natural Disaster-induced Distress in Adolescent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1: 385-402.
- Weem, C. F. and S. Overstreet. 2008.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Research in the Context of Hurricane Katrina: An Ecological Needs-based Perspective and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7(3): 487-494.
- West, S. G., J. F. Finch, and P. J. Curran.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02. *Disaster & Emergencies Definitions*. Training Package Panafrican Emergency Training Centre. Addis Ababa.
- Zeng, E. J. and L. B. Silverstein. 2011. China Earthquake Relief: Participatory Action Work with Children.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2(5): 498-511.
- Zhou, X, X. Wu, and R. Zhen. 2018. Self-esteem and Hope Mediate the Relations between Social Support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Growth in Adolescents following the Ya'an Earthquake. *Anxiety, Stress, & Coping*. 31(1): 32-45.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국민안전처. 2017. 912 지진 백서. <http://www.mpss.go.kr/home/index.html>
- 김신영, 백혜정. 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42(6): 140-173.
- 민문경, 주혜선, 안현의. 2016. 사회적 공감 잠재계층 분류에 따른 재난 이후 사회적 공유와 공동체 리질리언스의 차이. *상담학연구*. 17(6): 183-204.
- 손선옥, 이봉주. 2015.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2(10): 1-26.
- 송정애, 조금량. 2014. 지역주민의 가정건강성이 지역사회 애착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1(2): 188-210.
- 서운석. 2013. 경기지역 사회신뢰 현황 변화에 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3(1): 47-73.
- 이나빈. 2016. 생태이론에 기반한 재난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관련변인 메타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정순, 임원선. 2015. 지역사회 애착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한국정책연구*. 15(2): 101-125.

Received: Apr. 8, 2018 / Revised: May 24, 2018 / Accepted: May 28, 2018

재난 후 청소년의 안전감 회복 과정에서 지역사회 애착을 통한 사회적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

– 912 경주 지진을 중심으로 한 예비연구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재난 이후 안전감 회복 과정에 효과적인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912 경주 지진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부모, 또래, 교사)가 사회적 신뢰를 매개하여 지진 이후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이 영향력이 지역사회 애착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절된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관계와 안전감 간의 관계를 사회적 신뢰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지역사회 애착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관계와 안전감 간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애착을 통한 사회적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 애착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신뢰를 통해 안전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912 경주 지진, 안전감, 사회적 신뢰, 지역사회 애착, 조절된 매개효과

-
- Profiles**
- Ki Sun Sim** : She received BA. MA. in psychology from Ewha Womans University and completed her doctorate program at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Her interesting subject is counseling psychology & trauma(kisuns15@gmail.com).
- Hee Jeong Moon** : She holds BA. MA. in psychology from Ewha Womans University, and is currently a doctoral student at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Her interesting subject is counseling psychology & trauma(tofreeway@naver.com).
- Hye Sun Joo** : She is a psychologist(Ph.D). And she works at the Korea Trauma Research & Education Institute as a director. Her research interests and field of education are in counseling psychology and trauma(healingtrauma@daum.net).
- Hyun Nie Ahn** : She holds a doctorate in counseling psychology from Wisconsin-Madison University and is currently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at Ewha Womans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and field of education are in counseling psychology & trauma(ahn12@ewha.ac.kr).